

순창군 스포츠열기 후끈

유소년 야구대회 등 전국단위 대규모 대회 3개 유치

스포츠경기 비수기인 2월 순창군에서는 오히려 스포츠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군은 2월 2018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등 전국단위 대규모 3개 대회가 순창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첫 시동을 거는 대회는 2018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다.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지난해에 비해 19개팀이 증가한 전국에서 모인 52개 지역, 98개 팀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새싹리그, 썬나무리그, 유소년리그, 주니어리그로 나눠 진행되며 조별 리그전을 거친 후 본선 토너먼트로 우승컵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규모 대회에 따라 골목상권에 부는 훈풍 효과도 크다. 이미 순창지역내 민박, 펜션, 숙박업소 등의 예약이 완료 됐으며 선수단 응원을 위해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회는 정식 야구장이 없는 순창군이 기존 축구장, 체육공원을 야구장으로 보강해 치르는 대회로 순창군의 체육마케팅 노후가 그대



로 드러나는 경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18 춘계 전국대학정규연맹전'과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열리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구 국가대표 선발전도 주목받는 대회다.

대규모 선수단이 방문하는 전국대회로 아시안게임 정구 국가대표로 발탁되기 위해 선수단이 1월부터 전지훈련 차 순창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2월 중에 개최되는 스포츠대회 준비를 위해 경기장 정비와 시

설보완 등을 추진해 경기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대회는 관광비수기인 2월에 대규모 스포츠 경기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순창을 방문해 골목상권까지 살아가는 계기를 만든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순창군은 올해 국제대회, 전국 및 도단위 대회 38개 유치를 확정했으며 더 많은 대회 유치를 위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살린다

남원시 30억원 판매 목표

설탕이 한도 · 할인율 높여

온누리상품권이 남원시내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30억원 어치를 판매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도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구매할도를 늘리고 할인율도 올렸다.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할인율 5%) 가능하다. 또, 2월 14일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10% 할인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1월 말 현재 2억 6,000여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남원시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남원시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은 당초 목표를 초과한 4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정읍(39억3,800만원)·김제시(5억7,000만원)와 비교해도 크게 많은 액수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남원시 3개 전통시장을 비롯해 전국 1,500여 개명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남원시에서는 전북은행, 남원새마을



금고, 우체국, 온누리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중앙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 본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입할 수 있다.

남원시는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달 29일부터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설탕이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했다. 남원시청 직원들도 행사에 동참해 점심먹기 및 장보기 행사, 온누리 상품권 구입하기 운동 등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도봉동 및 왕정동 일원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사회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환주 남원시장도 오는 13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소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 아리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8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 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13일까지 6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영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었지만, 현대는 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을 민감하게 받아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으뜸 임실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남원 인월파출소, 범죄예방 총력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 인월파출소(소장 공덕식)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설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여 방범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위 기간 동안 인월면 소재 각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상대로 빈집털이 등 절도예방, 노인상태 보이스피싱, 물품 사기 예방법에 대한 홍보 및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고 있다.

공덕식 인월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접촉기회를 늘려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일제청소의 날 성료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읍면 소재지와 주요 도로변을 대청소하는 '일제청소의 날' 행사를 가졌다.

군은 8일 설 연휴기간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발생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설 명절 생활쓰레기 종합처리대책'을 수립, 공무원과 주민, 사회단체가 참여해 지역 곳곳을 일제히 청소했다.

또한 쓰레기 투기행위 예방 등 주민의 식 전환을 위해 다중이용장소 6개소에 '쓰레기 안버리기' 플래카드도 개점했다.

주요 도로 정제 구간 및 휴게소 등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계도·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쓰레기 없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설 명절 필요한 만큼만 음식물을 마련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쓰레기 품목별 분리배출, 일몰후·일출전 배출을 당부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만전

전자계시판 · 플래카드 · 현수막 · 포스터 등 계층

임실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군은 올 한해 정부가 총 2조 9,78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에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관내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을 현지방문하는 등 지역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 1인당 13만원 정액지급(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사업자는 근로자 1인당 년 156만원의 인건비 절감과 2018년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 절약 효과가 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 안내문을 사업주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군청과 읍면 홈페이지 배너와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 민원실 전자계시판, 플래카드, 현수막, 포스터 등을 계층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홍보 팸플릿을 배부한 데 이어 읍·면 이장회의시,

유관기관 회의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주력하는 등 사업 추진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의 밀착형 홍보를 통해 이해를 돕고 사업주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지조사를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 까지 실시 중이다. 군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주를 중심으로 홍보와 신청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사업자는 인건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고용보험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근로자는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내고장 바로 알기 교육 추진

5월까지 직원 245명 대상

순창군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7회 동안 직원 245명을 대상으로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은 군의 주요 사업과 자원에 대한 현장교육을 통해 군정 방향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새로운 비전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 또 순창군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기당 직급별 35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주요 현장방문과 분임토의 등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교육은 지난 8일 9급 공직자 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근 문을 열어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시작으로 장류체험

관 적성정수장, 섬진강 미술관 등의 현장을 둘러보고 군의 정책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밤에는 조를 나눠 느낀 점과 군정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임토의도 진행해 신규 공직자들이 군정의 미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9일에는 건강장수연구소와 일반농산어촌개발우수마을 방문, 팔덕역천지구, 공공승마장 등을 방문해 군정의 이해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교육장을 찾아 자신의 공직 경험을 들려주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황군수는 "지역공무원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바로 알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내고장을 바로 알고 순창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교육은 오는 22일과 23일 8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월 6급 대상자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휘트니스	